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창국인문 창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강권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용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일(20일), 찬양예배 시

성탄 칸타타 '성탄의 기적'

특별제집회

일시 : 12월 20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안건 : 2009년 결산 및 2010년 예산안 대상 : 모든 제직(서리집사 이상)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율법의 요구하는 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한 뜻의 표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본형이 율법의 의와 다르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롬 7:12). 계명은 생명을 이르게 한다(롬 7:10). 그러나 율법이 인간의 죄를 만났을 때 정죄하는 법이 되고(롬 7:13)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롬 3:19). 율법은 정죄할 수 있으나 의롭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후 3:9). 생명이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으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율법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 이 의는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라 진정한 의, 곧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육신을 따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생명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율법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서 율법은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롬 7:25, 8:1).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의는 우리의 의가 된다. 율법과 믿음이 서로 상반된 자리에서 있지 않다.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증거해 주는 것처럼 믿음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롬 3:31).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구별한다. 육의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원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해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뜬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새해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크리스마스 때문일다.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고대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되어버렸습다. 캐롤송,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화려한 파티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추느라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메리(Merry)는 '기쁜, 즐거운'이란 뜻이고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뜻이다. 즉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눅 2:13).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어떠한가?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마 1:23).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선물이냐 파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그것도 시골 배틀레헴의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마 5:2). 이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릴 수 없는 기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사육한 안으로 들어오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약 2009년 전 12월,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주일, '성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찬양예배 시에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 2009년 은퇴자 사상이 있습니다.

게 맞추어져 있다(롬 8:7~8).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성령에게로 향하여 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이다(갈 2:20). 이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의미한다(고전 2:16).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롬 8:9). 두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죄와 연약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육신에 여전히 살고 있다. 동시에 의와 생명에 이르는 모든 것이 되는 성령 안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또한 죄인이다(롬 8:10).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도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롬 1:4, 4:25). 땅 위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일어났던 그 일은 그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롬 8:11).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자.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자유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또한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영명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때에 죽을 몸과 생명이 되는 영 사에서 더 이상의 투쟁이나 긴장이 없게 될 것이다. 이 투쟁이 없어지는 이유는 영의 몸으로부터 해방되어 풀려나기 때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받았으며 또 이 생명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것을 육신이 저지른다.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완전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전진한다(고전 15:50, 54).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생명의 두 세계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투쟁한다. 비록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다(고후 10:2~3). 우리는 옛 세상에 사는 자의 증거가 있어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어 이미 새 세계에 속하여 있다. 아담 안에서 그의 지체가 된 우리는 그의 죄에 참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지체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다. 아멘.

GOD'S PROMISE FULFILLED

(18)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as follows: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by the Holy Spirit. (19)And Joseph her husband, being a righteous man and not wanting to disgrace her, planned to send her away secretly ... (22)Now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23)“BEHOLD,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translated means, “GOD WITH US.” (Matthew 1:18~23)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as you open your Bible to read the Christmas message, please take some time to consider the miracle of Jesus' birth. It was truly an amazing and wonderful event that changed history forever. Today's Bible passage explains,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as follows: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by the Holy Spirit" (Mt. 1:18). Never before, nor ever again, will such a miracle occur. No human can duplicate God's miraculous work. God planned this special miracle long ago, so that His love and grace could come to you. Let us now reflect on the deep and powerful meanings of Jesus Christ's virgin birth.

God is a great promise maker. He created the entire universe with His word, but He formed man from mud with His hands. After Adam and Eve sinned in the Garden of Eden, God designed a redemption plan. He told the serpent,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you on the head, And you shall bruise him on the heel" (Gen. 3:15). God promised a redeemer, namely Jesus Christ, to deal a dead blow to Satan's head at the cross, while Satan would bruise Christ's heel by causing Him to suffer. In other words, the work of the enemy would be undone by Jesus. God loves the world and His love caused Him to provide a Savior for sinner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God's love provided a redeemer. His grace brought salvation to all those who didn't deserve it. Through the virgin mother's birth would be announced the coming of the Redeemer,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 (Is. 7:14). God promised a Redeemer through a virgin mother long ago, and when the time was near for Jesus to be born, the Bible says, "Now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BEHOLD,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translated means, 'GOD WITH US'" (Mt. 1:22~23). God fulfilled His promise on Christmas day.

God is a great problem solver. The angel of the Lord told Joseph,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e Child who has been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Spirit.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t. 1:20~21). The promise of

redemption called for a Savior, who was to be born of a virgin. Consider again the creation of Adam and Eve and how God made them with His hands from mud, but now how He made Jesus from a virgin and the Holy Spirit. All people since that time came by procreation, but Jesus Christ came through a virgin by the Holy Spirit,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Lk. 1:37). Anything can happen with God. Christ's virgin birth tells us that God is big enough to solve all our problems. There is nothing too big or too small for Him to handle. You can confidently place your soul in His hands.

God is a great peace maker. Through the virgin birth, God made a way to be with us. 'Immanuel' means God with us. After sin separated us from God, God created Jesus to unite us. The virgin-born Savior redeemed us at the cross. The angels sang on the day of His birth,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Lk. 2:14). God's message of peace is found in Jesus. Philipians 4:4~7 says,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Let your gentle spirit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near.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When you bring your all and fully surrender to Jesus, God's peace will befall you. Peace on earth will come when Christ returns to reign,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There will be no end to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or of peace, 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establish it and to uphold it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From then on and forevermore.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accomplish this" (Is. 9:6~7).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bring you peace in the fullest sense of wholeness, prosperity, and tranquility. You can experience His peace now, and one day soon the whole world will experience it as well.

My dear friend, the miraculous virgin birth of Jesus Christ explains God's great promise, His great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His great peace. If you are humble, when you look at the virgin birth you will find God's message. No human being, just God, could make such a creation. Please come to Jesus Christ with faith and seek real peace. Share His gospel and His peace with everyone in this Christmas season. Amen. 🕊

| 다음 주일 설교 |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¹⁸⁾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¹⁹⁾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 ⁽²²⁾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리시되 ⁽²³⁾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18~23)



김성관 목사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경을 펴고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읽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적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영원히 바꿀놓는 진실로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마 1:18). 이러한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역사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적을 오래 전에 계획하셨기에 그분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는 깊고 오묘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하나님은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함과 동시에 사탄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대적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자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총은 그럴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심을 통해 구속주의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하나님은 오래 전에 동정녀를 통해 구속자를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2~23).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마 1:20~21). 구속의 언약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구속주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

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어 그들을 창조하셨는지, 이제 어떻게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지 살펴 보십시오. 창조 이래 모든 인간은 생식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7).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정녀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만큼 위대한 본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룰 수 없을 만큼 하찮은 문제도, 그만큼 엄청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은 최고의 평화를 주십니다.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킨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신 구속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4~7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6~7). 예수님은 완전한 풍성함과 고요함,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세계가 그 평화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평화를 말해 줍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겸손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참 평화를 구하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 평화를 나누십시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 정치기랍

메시아의 죽음 13

예수께서 묻히시다

(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자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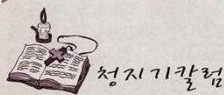
누가복음 23:50~56, 마가복음 15:42~47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 두 단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묻히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는 마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존경 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막 15:43)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누가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눅 23:50~51)고 설명했다. 당시 공회원들의 대부분은 존경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지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마가복음만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공회원들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누가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공회의 결정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성이다. 초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마가복음 15:44 말씀에 기록된 빌라도의 질문은 논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가는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눅 23:52)를 요구했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예수님이 유대 전통에 따라 장사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밝혔다(눅 23:53~54). 더불어 이 모든 과정에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밝혔다(눅 23:55~56).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5:46~47 말씀보다 훨씬 더 자세하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하는 과정도 마가의 설명(막 14:72)보다 누가의 설명(눅 22:61~62)이 더 분명하다.

마가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며 십자가의 사역을 홀로 감당했다는 것을 부각하였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었으며, 주변에 항상 제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십자가의 현장을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십자가의 현장을 아름답게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스데반,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누가가 마가의 자료만 사용했다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특별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메시아의 죽음을 확실하게 설명했다. 누가가 마가의 자료를 첨삭하거나 재배열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을 지라도 복음에 대한 통일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족한 부분은 누가 자신의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충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공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과는 반대로 세상에서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결정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죽음심과 부활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매 순간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공격에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참으로 쉽고 단순하다. 결국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복음서의 메시지와 동일하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아멘.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박우현
(인수집사, 집사회 회장)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복된 계절입니다. 긴 세월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탄생이었지만, 여전히 죄와 가운데서 자기의 주관과 생각에 사로잡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의 종교지도자들과 같이 오늘날 저의 모습도 내 생각과 나의 주관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네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고를 죽었다”고 힘 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안에 나는 나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내 스스로의 틀을 만들며 내 의를 앞세우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며 편안해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몇 년 전 직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은 악화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의 위험에 처해질 것 같았으며, 그로 인한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다행히 부도의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하고자 했으나 기도할 수 없었고, 믿음을 가지고자 했으나 믿을 수조차 없었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보다는 나의 계획과 경험을 사람을 의지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곤고한 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한 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모든 책임을 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하루 내 생각과 계획의 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 자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었으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 의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만민의 기적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며 그저 회개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 순간도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또한 심판 날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나를 온세대의 자 중에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미룰 수 없다

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과 8학 9일의 선교일정은 직장생활을 하는 나에게 적잖은 부담과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망글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선교에 동참하였다. 팀 훈련 초기부터 팀원 구성과 전도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연합함을 깨닫게 하였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현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과 가난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맑은 눈망울로 전도지를 읽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예수를 믿겠다고 "아멘" 할 때 이들이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영혼들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루 속히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구상형(집사, 15교구)

감사할 뿐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셨고 나는 주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다닐 때 차 안에서는 뜨거운 찬양을 주님께 읊었다. "예수 이름 듣고 자옥 떨리니 형제들이 다함께 찬송 부르자 오!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에 담긴 거대한 힘과 원수 마귀가 무서워서 떨고 있음을 영적으로 느꼈다. 선교를 하기 전 아이들 문제로 고민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은 큰 은혜를 주셨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우며 감사할 뿐이다.

홍희정(집사, 10교구)

순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많은 영혼을 만났고, 영접기도도 했다. 그 때 공안이 나타났지만 천사가 마귀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였고, 성령으로 인도하셨다. 경건회와 저녁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셨고, 은혜를 증진하게 주셨다. 이런 선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였고, 우리 교회가 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하는지 알 것 같다.

김경복(집사, 4교구)

주님의 땅을 다녀와서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며 감동을 거듭했다. 서툰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아멘"을 외치는 순간, 언어의 장벽은 금세 허물어졌다. 그 첫 한사람으로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변화를 주셨다. 노인을 만나는 대로 깊은 은혜를 주시고 청년을 만나는 대로 희망을, 어린이를 만나는 대로 순수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만날 영혼을 예비하고 계셨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그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주재환(성도, 18교구)

들판을 건너 산을 넘어

하루하루를 개척자의 정신으로 들판을 건너고 산을 넘었다. 흙탕길을 누비며, 낙후된 주택과 배고픔을 감수하며 작은 마을을 찾아갔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였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서 걸었다. 영접기도를 따라하던 신희부 '친', 언니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를 망설이던 고등학생 '하이' 등 무수한 영혼들이 눈앞에 포착되었다.

윤상규(교사, 고등부)

종합 선물세트

꼭 만나야 할 영혼을 찾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주셨다. 보너스로 받은 그 하루 동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던 어느 여인을 만났다. 한 살 된 뇌성마비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으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우리를 만났다고 했다. 그 여인을 통해 정말 주님의 계획하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하심을 새삼 다시 느꼈다.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실 이 일들은 결국 하나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였다. 하루 놓여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님이 주신 종합선물세트였다. 많은 사역을 그 짧은 시간 모두 체험하며, 기쁨으로 내려놓게 하시어 더욱 큰 은혜였다.

유미경(청년1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라!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5일(화) ~ 12월 23일(수)	24교구 6팀	박인호
12월 15일(화) ~ 12월 23일(수)	22교구 4팀	유희호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8일(화) ~ 12월 17일(목)	3교구 2팀	이진재
12월 11일(금) ~ 12월 19일(토)	24교구 5팀	왕순화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일(화) ~ 12월 9일(수)	13교구 3팀	김철남

복음 앞에서는 문화와 계급은 물론 장애이냐 비장애이냐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며 마음 속에 농라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떠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농라인'으로 더없이 기쁘고 값있는 시간이었습시다. 그 동안 제가 가진 선교의 경험이나 방법들을 모조리 접어두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교였습시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며 선교지에 왔으나 처음부터 장벽에 부딪혔습시다. 뜻밖에도 농라인들을 만나는 일부터 어려웠습시다. 수조곤 끝에 시장에서 신발이나 옷 장사를 하는 농라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를 나누어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습시다.

봄비는 시장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기란 참으로 쉽지 않았습시다. 농라인들에게 한국어 수화라 현지어 수화로 번갈아 신호를 보냈지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반응이 없었습시다. '이곳에서 과연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으며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순간, 신기하게도 한 영혼을 만났습시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수화를 했지만 그의 반응은 냉랭했습시다. 반가운 눈빛도 없고 복음에도 무관심했습시다. 공허함과 안타개를 마음을 누르고 전도지를 전해주었으나 마음 한 편이 내내 아팠습시다.

또한 어렵게 농라인 집을 찾아갔으나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시다. '포기하고 다른 영혼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그 영혼을 놓지 않았습시다. 그 집을 세 번이나 방문했으나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시다. 한국으로 떠나오기 한 시간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그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났습시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가슴 한 편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시다.

연인과도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시다. 또한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훈련이 필요함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시다. 그리고 제 마음 속 깊이 장애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배진희(예배다부)

간증과 나눔

회개

소년부 교사로서 일 년을 보내고 다시 초동2부의 교사를 맡게 됐을 때, 솔직히 순종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나의 신앙도 바로 서지 못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부당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못한다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시 초동2부의 교사로서 아이들을 맡겨 주셨지만 나의 일상과 일들에 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다시 회개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최근에는 '감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부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였다. 나의 죄가 주중 갈을지라도 눈과 같이 회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회개하였다. 이러한 감사와 은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기보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

예지희(교사, 초동2부)

*초동2부는 초등학교 4~6학년부를 위한 교육부서이다.

기도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 내 생각과 열려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고민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빌 4:6~7).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새워져 가기를 기도한다. 내가 험할 때만이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맡겨 주신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시 145:18).

이혜경(교사, 초동1부)

*초동1부는 초등학교 1~3학년부를 위한 교육부서이다.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어느덧 2009년의 끝자락에 와 있다. 뒤돌아볼 때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아 창피하고 죄송스럽다. 모든 여건이 힘들었지만 주님은 매순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였고,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하게 하셨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에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였고, 설교를 들을 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하지만 '나'라는 아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께서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으로 힘겹게 하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나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해결된 문제를 안도하며 점점 신앙적으로 나태해졌다.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대학부 집회에 빠지게 되고, 봉사부서에서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늘어났다. 주님의 손 잡고 가고 싶다면 고백은 잊은 지 오래였다. 이렇게 대학생 시절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번 닫힌 입술에서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죄인인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모태신앙인 나는 습관적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통해 귀한 봉사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주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였고, 주일찬양에매까지 드리도록 인도하셨다. 말씀이 얼마나 좋든지, 여전해 피곤하기만 했던 주일이 이전 은혜로 가득하다. 또한 대학부 조장으로 섬기게 하셔서 매년 사람에게 시샘 들던 연약한 갈대 같은 나를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에 그저 놀라고 감사할 따름이다.

한 해를 돌아보면, 단 1분 1초도 나를 잊은 적 없는 주님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저 천국에 가기까지 주의 손잡고 가리라!"고 다시 한 번 찬양하며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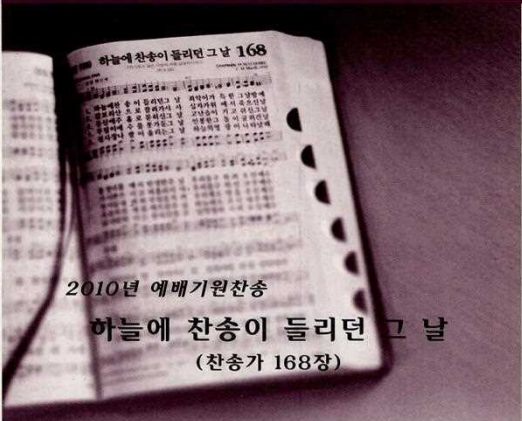
임지혜(대학부)

왜 우는지 다 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것과 주님이 너무나 다르다는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어 혼자 끌어안고 있던 모든 상처를 깊이 만져 주셨고, 하나의 상처를 만져 주시면 보란듯이 또 다른 곳에서 스스로 죄로 인한 상처를 만들어 내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가장 큰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제가 신실한 딸이어서 예쁘게 보아 주신 것이 아니라, 웃을 잘 처려 입거나 사람들에 친절할 태도를 지녀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셀 수 없는 결정을 지니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죠?'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 거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도 하염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며 "왜 우는지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내가 너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보기 두려웠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지 몰랐는데 심혈 속에 갈급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천천히 저의 깊은 곳에서부터 빛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내가 겪었던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그 빛,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너무 나로 좋은 것이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감사하라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이 삶을 통해 주어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심지훈(청년1부)



2010년 예배기원찬송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찬송가 168장)

2010년부터 주일예배 시 드리는 예배기원찬송이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로 바뀐다. 이 찬송은 9/4박자라는 사실을 유의하여 힘차게 그리고 조금 빠르게 찬송해야 한다. 특히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복음 그 자체이다. 1절은 그리스도의 탄생(마 1:18~25), 2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사 53:4~11), 3절은 그리스도의 장사되심(눅 23:51~53), 4절은 부활(골 4:25)과 승천(행 1:2~9) 그리고 5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살전 4:13~18)을 노래한다. 한마디로, 찬송의 가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건 발생 순서대로 전하는 복음(고전 15:3~6)인 셈이다.

후렴구의 가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하며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노래하게 한다. '사랑, 구원, 예수' 등의 단어에서는 좀 더 힘 있게 강조하여 부르고, 마지막 부분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 날"은 가장 힘 있게 선포하듯이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 2010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 주님은 회개한 죄인들의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김장을 담그며



지인이 강화도에서 기른 무공해 배추라며 한 박스를 들고 왔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반갑기도 하지만 일을 싫어하는 나에게는 하나의 일거리만 늘어 난 셈이다! 한 통은 날로 된장을 찍어 먹고, 나머지는 김치를 담그기로 하고 칼로 배추를 쪼개기 시작했다. '쫄~악' 소리가 난다. 더러는 속이 부스러져 땅에 떨어진다. 노오란 속살이 꼭 찬 정말로 맛있는 생김 배추다. 아주 맛있는 생김 노란 배추 속을 뜯어 입에 넣으니 '와~' 정말 달고 맛있다. 된장에 찍어 먹을 배추를 한 장 한 장 태어나어 물에 씻으니 한 잎 한 잎이 빛을 발하며 제 모습을 뽐내는 듯 더욱 싱싱하게 살아난다. 남은 배추들을 4~6등분으로 쪼개 소금물에 담그며, 유난히도 속이 짙들어 찬 것들은 그 위에 소금을 덧뿌린 후 소금물 속에 더욱 꼭꼭 눌러 댔다. 저녁에 백김치, 빨간 김치, 보쌈김치를 위한 양념들을 대강 준비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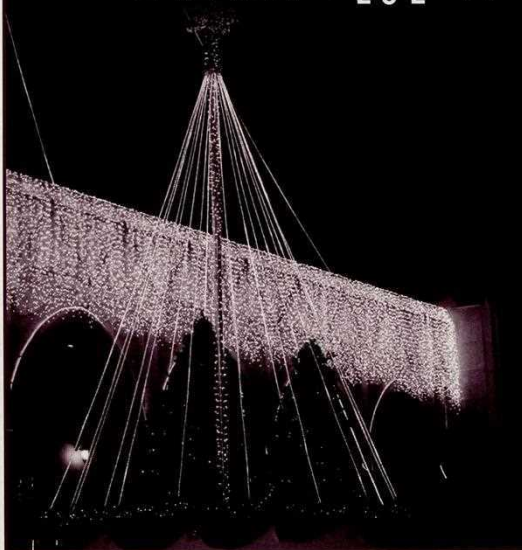
새벽기도회에 나가기 전에 소금물에서 어느 정도 숨이 죽어 있는 배추들을 고루 절여 지도록 아래위의 배추들을 속이 주었다. 시간이 지나니 소금물에 푹 담겨진 배추들은 싱싱하던 모습이 간 데 없고 배추 한 잎 한 잎이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잘 절여진 배추를 원하는 김치로 만들기 위해 각기 다른 양념들로 속을 집어넣었다. 내가 양념을 넣는 대로 싱싱한 배추는 간 곳 없고 새로운 모습의 맛깔스러운 김치로 태어난다. 김장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며 문득 나의 믿음을 돌아보았다.

"주님! 나도 이 배추처럼처럼 성령의 소금물에 완전히 담가 주소서.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게 내가 살아 있습니다. 너무도 싱싱해서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금방 부식되고 상치가 나고 소리가 납니다. 게다가 저 찢겼고 뺏겼게 고개 들고 있는, 소금물에 들어가지 못한 싱싱한 배추 같은 저입니다. 주님, 칼로 쪼개시고 성령의 소금물에 담그소서. 위에 있는 교만한 것을 아래로 아래로 내리고 내리소서. 그래도 포기 못하는 자만과 가증한 입술과 외식과 가식적 행위들 위에 소금을 덧뿌리시어 완전히 소금물에 절이시고 절이셔서 부드럽게 만드소서. 그리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잘 절여진 배추 되게 하소서. 위에 완전히 빠져 버린 성령의 소금물에 잘 절여진 배추되게 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김치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주소서. 때로는 단박한 백김치로, 때로는 매운 김치로, 때로는 작게 자르셔서 나박김치로, 많은 양념을 첨가하시고 예쁘게 싸서여 보쌈김치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맛난 김치 되게 하소서!"

무명의 성도

십자가의 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분당 양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계절이 온 것이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이 분명하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파티와 선물을 준비하여만 충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의 중심에는 온통 육신의 정욕, 안락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로 가득하다(요일 2:16). 거기에 우리는 연옥당에서는 안 된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화려한 파티가 아닌, 낮고 천한 밀교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5일 오전 9시·11시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17	최윤주	9	청년1부	한정석(18)
1518	방윤선	6	청년2부	배배운(20)
1519	이명환	17	고등부	남영훈(17)
1520	김계정	3	고등부	김민혁(1)
1521	오미혜	17	청년1부	윤석원(20)
1522	진정목	6	소망부	이정민(6)
1523	박미영	1	청년2부	오정례(1)
1524	강대욱	1	청년2부	오정례(1)
1525	강호세아	1	청년1부	오정례(1)
1526	김희성	7	청년1부	최영재(24)
1527	양선규	2	고등부	고수현(19)
1528	송원웅	2	고등부	노예원(3)
1529	임경은	22	대학부	김미연(13)
1530	박현준	2	고등부	김한나(22)
1531	박현호	2	고등부	강정술(14)
1532	김희연	13	청년1부	
1533	이진주	13	중등부	강혜진(1)
1534	곽성욱	4	대학부	홍서인(5)
1535	심지아	2	청년1부	심지수(2)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부목사				
이주석 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부	박기만 9404부 교역부	정진호 102부 교역부	김익환 127부 교역부	이희석 127부 교역부
홍길준 127부 교역부	하종철 127부 교역부	양재복 20부 교역부	유세진 32부 교역부	강영구 22부 교역부
김기형 127부 교역부	양태선 172부 교역부	박희진 52부 교역부	박희진 132부 교역부	박희진 24부 교역부
박용우 127부 교역부	이광현 127부 교역부	유호완 152부 교역부	김근영 152부 교역부	박윤식 152부 교역부
이성호 127부 교역부	최진철 152부 교역부	김장삼 152부 교역부	이재원 152부 교역부	이승진 152부 교역부
이정호 127부 교역부	안일천 28부 교역부	정민정 32부 교역부	김백범 202부 교역부	하영호 232부 교역부
정철호 127부 교역부				
* 여전도사				
전진애 127부 교역부	전덕식 127부 교역부	홍순애 32부 교역부	이옥주 152부 교역부	김잔파 152부 교역부
김정애 127부 교역부	김정연 127부 교역부	최문선 127부 교역부	전은희 127부 교역부	김정자 127부 교역부
신상철 127부 교역부	김정희 127부 교역부	이순애 127부 교역부	류진희 127부 교역부	김경미 152부 교역부
신상순 127부 교역부	유미자 127부 교역부	이복순 24부 교역부	김정자 24부 교역부	강옥진 24부 교역부
양기주 127부 교역부	정현일 152부 교역부	신영란 202부 교역부	이정애 22부 교역부	한정구 192부 교역부
정종호 127부 교역부				
이보선 127부 교역부				
김정희 127부 교역부				
정민정 127부 교역부				
신영란 127부 교역부				
최민선 127부 교역부				
김정희 127부 교역부				
* 시흥부도				
* 신남석				
* 외선남석				
* 나기대				
* 전일지휘자				
* 전일연주자				
* 전일노악				
* 전일경				
* 전일교사				
* 전일노악				

Shanghai Church Press